남북 언어 통합 사업의 현황과 과제

이 대 성(국립국어원) ‖ 한 용 운(겨레말큰사전)

국립국어원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의 현황과 과제

이 대 성 (국립국어원)

1. 서 론

분단된 지 70년을 맞은 지금 남북의 언어는 적지 않게 이질화되어 있고 이는 남북한의 통일을 앞두고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다가와 있다. 그동안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한 연구는 국립국어원 차원에서는 물론 학계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기에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이질화를 해소하고 언어통합을 이룰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북한의 체제 통합을 위한 논의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므로 언어통합에 대한 대비를 국립국어원이 중심이 되어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해 온 남북 언어 이질화의 실태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펴나가야 할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종합계획에 대해 상술하고자 한다. 남북 언어 통합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시급한 현안이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이탈주민이 꾸준히 증가하여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문제 해결은 앞으로 다가올 남북한 통일시의 언어 통합에 귀중한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이다.

2. 현 황

(1) 북한어 실태 조사 및 남북 언어 비교

남북 언어와 관련한 국립국어원의 첫 사업은 국어연구소 시절에 이루어진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사업이다. 1989년에 발음·맞춤법 편과 고유어 편으로 나누어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Ⅰ, Ⅱ》를 발간함으로써 남북 언어 연구 사업의 첫발을 뗀 것이다. 그 다음 해인 1990년에는 한자어의 차이를 다룬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Ⅲ》 이 발간되었다. 이들 보고서는 남한의 《국어대사전(수정증보판)》(이희승 편, 1982)과 북한의 《현대조선말사전(제2판)》(정순기 외, 1981) 두 사전을 분야별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Ⅰ》은 두 사전에서 표기와 의미는 같으나 발음 정보가 다른 표제어 부류(가공적[남-가공적/북-가공쩍]), 두 사전에서 발음 정보와 의미는 같으나 표기가 다른 표제어 부류(남-가래질꾼/북-가래질군), 두 사전에서 의미는 같으나 발음 정보와 표기가 다른 표제어 부류(남-낙관적[낙꽌적]/북-락관적[락꽌쩍]) 들로 나누어 차이를 알아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Ⅱ》는 남한 사전에는 없고 북한 사전에는 있는 고유어(가담가담)를 정리해 놓은 것이고,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Ⅲ》은 북한 사전에만 있는 한자어(문단주의)와 외래어(뜨락또르)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에 《남북한 어문규범》도 펴냄으로써 남북 언어 사업의 두 축인 '어휘 및 사전 분야'와 '규범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어휘 및 사전 분야'에 대한 연구 사업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된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 사업이 있다.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 (I)》(1992)은 『조선말대사전』(1992)을 대상으로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관련 어휘의 남북한 차이를 조사한 것이고,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 (II)》(1993)는 『조선말사전』(1961)과 『조선말대사전』의 장단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 (Ⅲ)》(1994)은 『현대조선말사전』(1981)과 『조선말대사전』을 대상으로 '다듬은 말'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 (Ⅳ)》(1995)는 『조선말대사전』에 수록된 성구와 속담을 남한의 국어사전과 비교한 결과

를 실었다.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 (V)》(1996)는 『현대조선말사전』과 『조선말대사전』에서 이중 체계 어휘[1]로 분류된 7,080항목의 어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말다듬기 사업의 실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들 연구 성과는 당시 편찬 중이던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북한어 정보를 제시하는 데에 반영되었다. 이외에도 북한 사전을 분석한 보고서로는 《북한의 "조선말 사전(학생용)" 분석》(2002)과 《북한 사전 미등재어 조사 연구》(2003)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북한의 "조선말 사전(학생용)" 분석》은 『조선말사전(학생용)』과 『표준국어대사전』을 대조하여 남북 언어 차이의 요인을 분석하고 요인별로 통계를 내어 남북 언어 차이의 계량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의 어휘 실태를 연구한 결과물로는 1992년에 북한에서 간행된 신문 1종과 잡지 4종의 한달치 분량을 대상으로 한자어와 외래어의 사용 빈도를 조사한 《북한의 한자어,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1993)가 처음 이루어졌다. 이후에 남한에서는 쓰이지 않는 어휘나 표현을 분야별로 정리한 《북한 문학 작품의 어휘》(1998), 《북한 시나리오 어휘 조사 연구》(2001), 《북한 영화 어휘 조사 연구》(2001), 《북한 방송 용어 조사 연구》(2002), 《북한 신문 용어 조사 연구》(2002) 등이 연이어 제출되었는데, 이들 연구들은 북한 사전만을 분석하던 기존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실제 언어 자료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북한어의 실상과 남북 언어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북의 어휘 사용 양상을 대조한 연구 성과도 한 무리를 이룬다. 《남북한 외래어의 비교 연구》(1995), 《남북한 한자어 어떻게 다른가?》(1999),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외래어 조사》(1999),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어휘》(2000) 등이 있다. 위의 보고서를 통해 보건대, 주로 외래어나 한자어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 이후에 발간된 세 건의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 방법과 달리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남한의 언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이런 연구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는 실제 북한어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들 보고서는 당시 탈북민의 증언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높였다.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에 대한 연구 성과들도 여럿 있는데, 이 중에서는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개의 용어 대조 작업은 양

1) 『현대조선말사전』의 일러두기에 나오는 용어이다. 말다듬기의 과도기적 처리 방안의 하나로, 이미 북한 언중들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린 한자어나 외래어를 다음은 말과 함께 쓸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가리킨다. 이중 체계 어휘는 직접 뜻풀이를 하지 않고 '⇒, →, ○, ×'와 같은 부호를 활용하여 다른 표제어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쪽의 사전 표제어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나, 이 연구는 남북의 초중등 교과서에서 용어를 직접 추출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실제 쓰이고 있는 남북의 기초 전문용어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1》(2007)에서는 국사, 세계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천문학, 체육 등 8개 분야의 학술 용어를,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2008)에서는 국어, 문학, 기술, 미술, 음악, 지구과학, 국토 지리, 세계 지리, 한문 등 9개 분야의 학술용어를 비교 연구하였다.

<표 1>은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1》에서 도출한 교과서 학술 용어의 항목별 차이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남북이 어려운 용어를 공동으로 다듬어 쓴다면 50%에 가까운 전문용어를 통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표기법 차원에서는 두음법칙 적용 여부와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합의가 특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교과서 학술 용어의 항목별 차이 비율: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1

구분(%)	국사	세계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	평균
두음법칙	10.0	1.7	1.7	5.4	8.4	2.2	9.1	2.8	5.2
외래어표기	11.0	84.6	6.8	33.9	26.9	10.0	12.7	10.3	24.5
소계	21.0	86.3	8.5	39.3	35.3	12.2	21.8	13.1	29.7
쉬운 말화	27.5	11.1	77.4	33.0	37.0	59.5	60.0	79.4	48.1
총계	48.5	97.4	85.9	72.3	72.3	71.7	81.8	92.5	77.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교과서 학술 용어의 항목별 차이 비율을 분석하였다. <표 2>를 보면 '기타' 차이가 가장 비율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기타'에 해당하는 용어는 '침강(남)-침강운동(북)'과 같이 남북한 용어가 부분적인 일치를 보이는 것이 대부분으로, '기타' 차이가 가장 비중이 크다는 것은 남북한 용어가 부분적인 일치를 보여 그 대응쌍을 쉽게 가늠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휘의 정체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남북이 공히 고유어 선호, 외래어보다는 한자어를 선호하는 태도로써 나타났으며, 북한 용어가 무조건 고유어를 선호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용접 이음(남)/용접련결(북)'처럼 남한 용어가 더 고유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어

형'과 '외래어 수입원'에 따른 차이가 적은 이유는 남북한 대응쌍이 있는 학술 용어만 놓고 보면 북한에서도 영어식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러시아어를 주로 차용하여 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표 2> 교과서 학술 용어의 항목별 차이 비율: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구분(%)	국어문법	문학	한문	음악	미술	지리	세계지리	지구과학	기술	평균
표기법	0	20	0	27.9	21	14.2	82.9	7.8	44.1	23.8
어형	0	0	0	2.9	0	0	0	3.9	0	0.8
외래어수입원	0	0	0	0	0	0	1.3	0	0	0.3
어휘의 정체성	77.9	30	30.7	29.4	31.5	38	6.5	60.7	23.5	36.6
기타	22.1	50	69.3	39.8	47.5	47.8	9.2	27.4	32.3	38.5

남북의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일은 통일 이후 사회를 운영하는 데 매우 긴요한 일이다. 국립국어원은 올해 새롭게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비교 분석하고, 나아가 통합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규범 및 정책 분야'는 '어휘 및 사전 분야'에 비해서 연구 성과가 적은 편이다. 이 분야는 학계에서 주로 연구되어 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어문규범과 관련한 보고서로는 《남북한 어문규범 비교 연구》(2004)와 《남북한 어문규범 연구사》(2005)가 있다. 《남북한 어문규범 비교 연구》는 어문규범 통합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질 때를 대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남북한의 현행 어문규범을 크게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발음법'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남북한에서 차이가 있는 항목을 표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제시된 항목에 대하여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 제정 당시의 내용을 보이고, 분단 이후에는 남북의 어문규범이 바뀔 때마다 어떤 변화를 거쳐 왔고 그것이 현행 규범에서는 어떻게 정착되었는가를 설명하였다. 잇따라 나온 《남북한 어문규범 연구사》는 남북한에서 어문규범을 다룬 논문들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연대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들 연구 성과는 이후에 진행된 남북 간 어문규범 통합 논의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국어 순화와 관련해서는 《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방안 연구》(2002)와 《남북 언어 순

화 자료집》(2002)이 있다. 앞에서 남북한 학술 용어 통합을 위해서는 공동 순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방안 연구》는 남북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순화의 이론을 개발하고,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구 등을 고안하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보고서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 순화의 원칙으로 '1. 인지도 우선의 원칙, 2. 용이성과 간편성, 3. 개념의 동일성과 가치의 동질성, 4. 개념의 차별성과 예견성, 5. 조어 방식의 적절성, 6. 통사 기능의 동질성, 7. 단어족의 호응성, 8. 발화의 경제성'을 제시하였고, 실천 과제로서 '1. 남북한 국어정책 심의회 구성, 2. 남북한 공동 연구 공간의 확보, 3. 상대편 순화안의 수용' 등을 제시하였다.

같은 해에 나온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은 남북의 순화어 중에서 공통 분모를 찾고자 하는 취지에서 간행되었는데, 남북의 순화 용어(대상: 남-22,655항목, 북-38,307항목) 중 서로 같은 말로 순화한 용어 705항목을 추출하였다.

정보화 및 언어 자료 구축과 관련해서는 《한민족 언어 정보화(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1998, 1999), 《북남 대역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2003), 《남북 고문헌 자료 조사 연구 사업을 위한 기초 연구》(2007), 《80-90년대 북한 지역어 자료 디지털화》(2008) 등이 이루어졌다. 《한민족 언어 정보화(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사업은 21세기 세종계획의 연구 성과물로서, 고빈도 어휘 5,000단어를 기준으로 남북 비교 사전을 만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 집필지침 제작, 사전 입력기와 검색기 등을 개발하였다. 《북남 대역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북한어 정보를 수정, 보완하고 남쪽 대역어를 추적하여 통합사전 편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세종계획에서 개발한 북남 정서법 변환기의 사전을 보충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현재 편찬 중인 『겨레말큰사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북한의 언어학 연구 성과를 정리한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는데, 《북한어 연구 논저 해제집》(2001), 《북한의 우리말 의미 연구 자료집》(2003), 《북한 국어 연구 논저 목록[1946~2004]》(2005), 《북한 국어학 용어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2005) 등은 북한어 연구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다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최신 연구 동향은 정리된 바가 없어 향후 후속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의 언어예절을 비교한 것으로서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1995)이 있었고 2013년에는 《남북 언어 예절 비교 연구》도 진행된 바 있는데, 이는 최근 북한어에 대한 관심이 북한의 언어문화로까지 넓어지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남북 언어

예절 비교 연구》에서는 남북의 호칭·지칭어뿐만 아니라 인사말과 경어법에 대해서도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사회문화적 차이가 고착화하면서 언어예절과 화법에서도 남북 간에 차이가 적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남북 언어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남북 언어 통합 종합 계획 수립》이라는 연구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향후 국립국어원의 남북 언어정책의 주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표 3> 남북 언어 관련 사업 결과 보고서 목록

	연도	사업/결과물 이름	추진 주체
1	1989	남북한 언어차이 조사Ⅰ(발음, 맞춤법 차이 조사)	국어연구소
2	1989	남북한 언어차이 조사Ⅱ(고유어 차이 조사)	국어연구소
3	1990	남북한 언어차이 조사Ⅲ(한자어, 외래어 차이 조사)	국어연구소
4	1990	남북한 어문규범	국어연구소
5	1992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Ⅰ	국립국어연구원
6	1992	북한의 언어정책	국립국어연구원
7	1993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Ⅱ	국립국어연구원
8	1993	북한의 한자어,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9	1994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Ⅲ	국립국어연구원
10	1995	남북한 외래어의 비교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11	1995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Ⅳ	국립국어연구원
12	1995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13	1996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Ⅴ	국립국어연구원
14	1998	북한 문학작품의 어휘	국립국어연구원
15	1999	남북한 한자어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연구원
16	1999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외래어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17	1999	한민족 언어 정보화(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문화관광부
18	2000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어휘	국립국어연구원
19	2001	북한 시나리오 어휘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20	2001	북한 영화 어휘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21	2001	북한어 연구 논저 해제집	국립국어연구원
22	2001	남한 정착 북한 출신 주민의 언어적응 실태 조사 연구	문화관광부
23	2002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
24	2002	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25	2002	북한 방송용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26	2002	북한 신문용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연도	사업/결과물 이름	추진 주체
27	2002	북한의 "조선말사전(학생용)"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28	2003	북한의 우리말 의미연구 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
29	2003	북한 사전 미등재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30	2003	북남 대역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31	2003	남북 언어 순화 자료 협의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32	2004	남북한 어문규범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33	2005	남북한 어문규범 연구사	국립국어원
34	2005	북한 국어연구 논저 목록(1946~2004)	국립국어원
35	2005	북한 국어학 용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원
36	2005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37	2006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38	2007	남북 고문헌 자료 조사 연구 사업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39	2007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1	국립국어원
40	2008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2	국립국어원
41	2008	80-90년대 북한 지역어 자료 디지털화	국립국어원
42	2011	새터민 어휘 학습용 실물 교재	국립국어원
43	201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필수 생활 어휘 자료집	국립국어원
44	2013	남북 언어예절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45	2014	남북 언어 통합 종합 계획 수립	국립국어원

(2)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학술회의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남북 언어 차이를 좁혀 나가려면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국어원은 1996년부터 남북의 언어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남북 언어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1996년에 중국 창춘에서 열린 제1차 남북 공동 학술회의에서는 남북 언어 문제에 관한 16건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였으며, 2001년에는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주제로 중국 베이징에서 제2차 남북 공동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후에도 민족어 보존, 방언 조사, 말뭉치 구축 등의 주제로 중국에서 2007년까지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2009년 제8차 학술회의부터 북측 학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남측과 재외동포 학자가 중심이 되어 겨레말 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북의 학자들과 함

께 우리말의 나아갈 길을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표 4>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목록

회의	일시	장소	주 제
제1차	1996. 8. 5.~7.	창춘	남북 언어에 관한 발표 16건
제2차	2001. 12. 14.~16.	베이징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
제3차	2003. 11. 5.~10.	베이징	민족 고유어의 통일적 발전과 방언 조사
제4차	2004. 6. 22.~25.	베이징	민족어유산의 수집 정리와 고유어체계의 발전
제5차	2004. 12. 22.~25.	선양	민족 방언의 조사, 연구 및 코퍼스
제6차	2005. 12. 13.~15.	선양	민족어 어휘구성의 변화와 통일적 발전
제7차	2007. 11. 17.~18.	옌지	민족어 발전의 현실태와 전망
제8차	2009. 10. 20.~21.	타슈켄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자료 개발과 한국학
제9차	2010. 12. 28.~30.	오사카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제10차	2011. 11. 23.	서울	체제통합과 언어문제
제11차	2013. 11. 20.~22.	옌지	언어접촉과 언어변이
제12차	2014. 9. 17.~20.	옌지	남북·조선족의 언어문화의 변화와 전망
제13차	2014. 8. 14.	서울	우리말 문화유산의 정비와 통합을 위한 과제

이 외에도 국립국어원은 2009년에 한국사회언어학회와 공동으로 '남북 언어 통합 연구 현황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한국어교육학회와는 '남북 국어교육 및 해외 민족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다.

(3) 북한이탈주민 언어 적응 지원

흔히 북한이탈주민을 가리켜 '미리 온 통일'이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언어 적응 지원 사업은 당장은 가난, 이주, 장애 등을 이유로 한국어 의사소통 체계의 외곽에 있는 언어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대비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언어에 대한 일련의 연구 결과물들은 남북의 어휘나 규범을 통합하는 것만으로는 남북 언어가 성공적으로 통합되기 어렵다는 점을 널리 인식시켜 주었다. 남북 언어의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 사회와 언어문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언어 실태와 관련한 연구 보고서로는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2005)와 《새터민의 언어 실태 조사 연구》(2006)가 대표적인 성과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재와 실용서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2012),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 1, 2, 3》(2013),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말하기》(201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필수 생활 어휘 자료집》(2014) 등의 교재류를 발간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43회에 걸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은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출신 배경이나 연령층 등 여러 면에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 지원 사업도 새로운 접근 방법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립국어원은 2016년에 새롭게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립국어원은 2012년과 2014년에 한국정책방송원(KTV)와 공동으로 '우리말 하나되기'라는 프로그램 21회분을 제작, 방영한 바 있다. 관련 영상 자료는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과제 및 계획

지금까지 국립국어원이 수행해 온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을 살펴보았다.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은 그 특성상 민간에서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국립국어원은 다양한 부문에서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내왔다고 자평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어 통합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 언어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업 수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국립국어원에서는 2014년에 《남북 언어 통합 종합 계획 수립》이라는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하였다. 남북한 언어 통합을 위한 정책 목록들을 제시하고 전문가 60명에게 각 정책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15명을 대상으로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 언어 통합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통합 연구-통합 교육-실태 조사'를 3대 축으로 하고 '제도 정비'와 '교류 활성화'가 이를 지원함으로써 남북 언어 통합의 기반을 수립하고, 종국적으로는 언어 문제로 인한 사회 문화적 갈등 해소를 통해 '진짜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어 말뭉치 구축, 남북 전문용어 통합, 남북 언어정보 시스템 구축, 북한어 및 북한어교육 전문가 양성, 북한이탈주민 언어 교육, 남북언어통합위원회(가칭) 설립, 남북 공동학술회의 정례화 등의 사업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사업들은 남북 관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앞으로 국립국어원의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이 체계성과 지속성을 갖추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올해는 북한어 균형말뭉치 설계 및 시범 구축,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및 통합안 연구,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기존 사업에 더하여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지원과 관련된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표 5> 남북 언어 통합 종합 계획 개요

문제점	- 통일 후 남북의 언어 문제로 인해 사회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상존 - 사회문화적 갈등 상황은 진정한 통일을 이룩하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
⬇	
개 선 방 안	- 분단 이후 남북의 사회 체제 차이로 인한 언어적 이질감에 대해 상호이해에 이르도록 유도 -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한민족의 언어적 공동 기반에 대한 인식 공유의 토대 구축
⬇	
추 진 계 획	- 남북 언어 사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언어 자료 구축 -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 차원의 남북한 일반어와 전문어 조사, 대조, 분석 -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남북 언어 통합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 및 연구 인력 양성 - 실태 조사, 통합 연구, 통합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 -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

어쩌면 지금껏 우리는 한국어의 반만 보고는 한국어가 다 그러하다고 생각해 온 것인지도 모른다. 나머지 반쪽을 알게 되면, 혹 다르거나 틀리다고 생각해 온 것이 본래

는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남북의 언어 자료를 축적하고 연구하는 과정은 한국사의 전환기를 대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일일 수 있다.

통일 시기 남한어와 북한어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두 개의 거대 방언'이 될 것이다. 둘이 대립하는 것은 위태롭다. 균형이 없기 때문이다.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 힘을 잃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른바 '거대한 소수'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남북 언어 통합 정책이 '진짜 통일'로 가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다. 한국어 안에 두텁게 그어진 삼팔선을 지우는 일, 이것이 바로 국립국어원이 앞장서서 할 일이 아닌가 한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 용 운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

1. 머리말

남측에서의 북한어 연구는 1970년대에 들면서 시작되었다. 이때의 북한어 연구는 정부 기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물은 대부분 '북한어 관련 자료집' 수준이었다.[1] 이후 1980년대에 이르러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북한어 연구는 언어정책, 표기법, 문법, 음성학 등 북한어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는 대체로 남북의 언어정책, 표기법, 문법 등에서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 특히 1998년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되고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남북 언어 '통합'과 '통일'을 주제로 한 논의들도 차츰 많아졌다.[2]

이처럼 1970년대 이후 남측에서는 40여 년 동안 북한어 관련 자료를 축적해 왔고, 남북 언어 비교 연구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또한 남북 언어 통합 및 통일에 대한 방안

1) 국립국어원의 ≪북한어 연구 논저 해제집≫(2001)에 따르면, 1971년 이후부터 '북한문제연구소', '극동문제연구소', '중앙정보부', '국민방첩연구소', '국토통일원' 등에서 북한어 관련 단행본을 간행하였다. 1970년대에는 일반인들의 북한 자료 열람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주로 정부 기관 주도로 북한어 관련 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 남북 언어 통합 및 통일 관련 연구물들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차재은 교수의 "남북 언어 통합 방안 연구의 현황과 전망, ≪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 논문집≫"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 언어 통합 및 통일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물들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언어 통일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들도 다양하게 충분히 제시되었다.[3] 그렇지만 이 연구물들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북측과 논의되지 않은, 남측 단독의 관점만 반영된 것이었다. 이제는 이러한 연구물들을 토대로 하여 남북의 겨레가 함께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시점에 남북의 학자들이 2005년 2월 19일에 금강산에 모여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결성식을 가졌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부에서는 '한글 창제 이래 대사건'이라 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였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에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23차례 남북공동회의를 진행해 왔다. 남북의 사전편찬가들은 서울과 평양, 개성, 금강산, 중국 등을 오가며 사전편찬을 위한 거시적인 편찬요강을 합의하였고, 올림말 선정 및 뜻풀이 방식, 새어휘 조사 방법 등을 함께 작성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선정된 올림말에 대한 풀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현황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겨레말큰사전≫ 소개

1) 편찬 목적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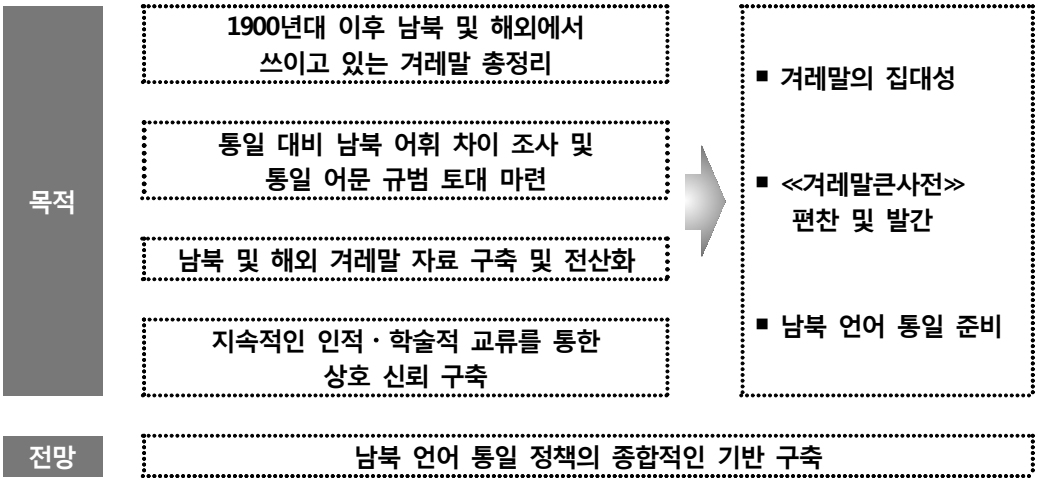
분단 이후 우리 겨레는 이념과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교류마저 단절된 채 60여 년을 생활하였으므로,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 등 여러 분야에서 동질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남과 북의 어문규범에 차이가 생겼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지금처럼 분단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상대측 어휘를 찾아볼 수 있는, 남북의 겨레가 함께 볼 수 있는 사전이 필요한데, 현재 남측에서는 북측 사전을 참조할 수 없고 북측에서는 남측 사전을 참조할

3)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서 '북한어, 북한사전, 남북 언어, 남북말, 언어통일, 언어 통합, 북한 표기법' 등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결과 19,000여 편의 연구물이 검색되었다. 이 중에는 학위논문이 3,100여 편, 학술지 논문이 3,600여 편, 단행본이 12,800여 권 정도 포함되어 있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현재 남북의 학자들이 함께 편찬하고 있는 사전이 ≪겨레말큰사전≫이다. ≪겨레말큰사전≫은 남북이 함께 편찬하고, 남북이 함께 이용하게 될 첫 대사전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목적과 전망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편찬 목적과 전망



2) 공동 편찬 요강

2005년 7월에 남북의 편찬위원들이 함께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공동편찬요강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요강

1 사전의 성격

① ≪겨레말큰사전≫은 우리 겨레가 오랜 기간에 걸쳐 창조하고 발전시켜 온 민족어 유산을 조사 발굴하여 총 집대성한 사전이다.

② ≪겨레말큰사전≫은 사전 편찬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합의 해결한 통일 지향적인 사전이다.

③ ≪겨레말큰사전≫은 수집한 어휘 자료 가운데서 남과 북이 공통으로 쓰는 것은 우선 올리고 차이 나는 것은 남과 북이 있는 힘껏 합의하여 단일화한 약 30만 개의 올림말을 가진 대사전이다.[4)]

④ ≪겨레말큰사전≫은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자사전을 동시에 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언어 정보를 주는 현대 사전이다.

2 사전의 편찬 원칙

①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맞게 민족 공조의 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

② 남과 북의 언어적 차이를 한꺼번에 다 없앨 수 없는 조건에서 단계를 설정해 놓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사전을 완성하되 이를 지속적으로 보충하도록 한다.

③ 남과 북의 언어적 차이를 줄이며 우리말의 민족적 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방향에서 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부문별 작업 요강 3~5개를 만들어 사전 편찬 작업의 공통된 지침서로 삼는다. 작업 요강은 '원고 집필 요강', '언어 규범 단일화 요강', '어휘 조사 요강', '남북 국어사전 비교 요강', '사전 자료 정보화 요강' 등이다.

3 사전의 올림말과 뜻풀이

가. 사전의 올림말

① 20세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쓰고 있거나 썼던 말 중에서 올림말로 올릴 가치가 있는 어휘를 수록한다.

② 기존 사전 (≪조선말대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올림말에서 ≪겨레말큰사전≫에 올릴 어휘를 우선 합의 확정한다.

③ 방언, 민속 어휘, 동식물 이명, 직업 어휘, 문학 작품에서 뽑은 말, 새말 등 광범한 분야의 문헌 자료와 생산 현장에서 어휘 조사 사업을 진행하여 민족 고유의 어휘 표현을 많이 올리도록 한다.

④ 현시대 과학 기술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문 용어를 어느 정도 올리되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말을 영역별로 선별한다.

---

4) 2006년에 편찬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겨레말큰사전≫의 올림말을 최소한 30만 개 이상 올리기로 합의하였다.

나. **사전의 뜻풀이**

① 언어학적인 뜻풀이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전문 용어를 비롯한 일부 올림말에 대해서는 백과사전적인 뜻풀이 방식을 적용한다.

② 뜻풀이 문장 구성에서는 어떤 격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보다 친절하고 알기 쉬운 방식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③ 될 수 있는 한 단어의 밑뜻이나 어원 및 유래를 밝히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올림말에서 발음, 원어,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관련어 등의 폭넓은 정보를 주되 남과 북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4 작업 방식과 제품의 완성 형식

① 남과 북의 공동 편찬 위원회는 각기 자기 산하에 3-5개의 작업조를 구성하여 사전 편찬 사업을 밀고나간다.

② 공동 편찬 위원회는 사전 편찬 요강과 작업 요강들의 심의, 사전 초고 심사 검토, 사전 편찬과 관련한 국제 토론회 조직, 매개 작업조에서 제기된 학술적인 문제들을 심의 결정하며, 작업조에서는 작업 요강 작성과 자료 조사, 초고 집필 등 사전 편찬 작업을 직접 집행한다.

③ 남은 ≪표준국어대사전≫, 북은 ≪조선말대사전≫을 모체로 제각기 올림말 선정과 뜻풀이 작업, 새말 보충 작업을 진행한다.

④ 언어 규범의 남북 단일화 문제와 사전 원고 집필에서 생기는 언어학적인 문제는 양측 부문별 작업조(언어 규범 단일화조, 원고 집필조)들이 편찬 위원회 모임과는 따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완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⑤ 남과 북에서 제각기 만든 ≪겨레말큰사전≫의 원고를 합쳐 완성할 때에는 몇 개 부분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단계적으로 편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편집 완성한다.

⑥ 완성된 원고는 남과 북의 합의 아래에서만 출판할 수 있으며 합의된 원고는 표현 하나도 자의로 고칠 수 없다.

2005년 7월 10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평양

이 '공동 편찬 요강'을 바탕으로 하여 '세부 작업 요강'을 작성하였으며, 현재는 작성된 요강에 따라 남북의 편찬원들이 합의 원고를 작성하고 있다.

3) 남과 북의 편찬위원

현재 남북의 편찬위원들은 '올림말 분과', '집필 분과', '새어휘 분과', '종합 분과'로 나뉘어 편찬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남북공동편찬회의에서 논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공동편찬회의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정기적으로(1년에 4회) 개최되었으나, 2010년부터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4년 7개월 동안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편찬 일정 차질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생겼는데, 기존의 공동편찬회의를 '편찬위원회'와 '집필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집필회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즉, 편찬위원회를 이틀에 걸쳐 개최하고, 6~7일 정도 집중적으로 집필회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집필회의에서는 남북의 편찬원들이 8개 조로 나뉘어 남북에서 각기 집필해 온 낱말의 뜻풀이를 상호 검토하고 합의하는데, 한 회당 22,000여 개 올림말의 풀이를 합의하고 있다. 남북의 편찬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3) 남북공동편찬위원회

1 남측 편찬위원회

이름	직위	현직
고은태	편찬위원	이사장
홍종선	위원장	고려대 국문학과 교수
김재용	편찬위원	원광대 국문학과 교수
김창섭	편찬위원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
유현경	편찬위원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
정희원	편찬위원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조남호	편찬위원	명지대 국문학과 교수
최호철	편찬위원	고려대 국문학과 교수
김강출	편찬위원	올림말부 부장
이길재	편찬위원	새어휘부 부장
임보선	편찬위원	집필부 부장
정희창	종합분과 위원	성균관대 국문학과 교수
한용운	종합분과 위원	편찬실장

2 북측 편찬위원회

이름	직위	소속
문영호	위원장	조선언어학학회 위원장
윤춘현	편찬위원	조선사회과학지도위원회 국장
정순기	편찬위원	조선언어학학회 부위원장
고인배	편찬위원	조선사회과학지도위원회 처장
고인국	편찬위원	조선사회과학원 부원
최병수	편찬위원	조선언어학학회 서기장
방린봉	편찬위원	조선사회과학원 실장
권종성	편찬위원	조선사회과학원 실장
리명복	편찬위원	조선사회과학지도위원회 위원
허일룡	편찬위원	민족화해협의회

3. ≪겨레말큰사전≫ 편찬 현황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고 문익환 목사가 1989년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에게 '통일국어대사전' 편찬을 제안하면서 태동되었다. 그 이후 여러 사정으로 진척이 없다가 2005년 2월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결성되면서 편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동편찬회의를 일 년에 네 차례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전 편찬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였다. 2009년부터는 선정된 올림말에 대한 집필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2010년에 남북 교류가 단절되면서 2014년 6월까지 공동회의가 중단되었다. 다행히 2014년 7월에 편찬회의가 재개되었지만, 여전히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의 편찬 경과를 주요 일정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편찬사업 추진 경과

○ 2004. 4. (사)통일맞이(남)와 민족화해협의회(북) 간의 사전 편찬 의향서 체결, '≪겨레말큰사전≫'으로 사전 명칭 결정

○ 2004. 12. ≪겨레말큰사전≫ 편찬 합의서와 부속 합의서 체결
○ 2005. 2.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결성식 및 제1차 남북공동편찬회의 개최
○ 2005. 7.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요강 합의
○ 2006. 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설립
* 사업 주체를 (사)통일맞이에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로 이관
○ 2007. 4.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제정
○ 2009. 3. 제1차 남북공동집필회의 개최
○ 2005. 2. ~ 2009. 12. 남북공동편찬회의 총 20회, 남북공동집필회의 총 4회(2009년) 개최
○ 2013. 7.『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개정
* 편찬 사업 기간을 2019년 4월까지로 5년 연장
○ 2014. 7. 제21차 남북공동편찬회의 개최
* 4년 7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공동회의 재개
○ 2015. 5. 제23차 남북공동편찬회의 개최

다음으로 ≪겨레말큰사전≫ 편찬 과정과 지금까지의 진척률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겨레말큰사전≫ 편찬 과정 및 진척률

1 편찬 과정

편찬지침 작성	⇒	올림말 선정	⇒	올림말 집필	⇒	집필원고 교차 검토 및 합의	⇒	출판
- 올림말 선정 지침 - 집필지침 - 새어휘 조사 지침 - 어문규범 작성 지침 - 프로그램 개발 지침		- 올림말 선정 - 새어휘 조사 - 새어휘 선정		- 올림말 집필 - 새어휘 집필 - 단일어문규범 작성 - 말뭉치 구축 - 편찬 프로그램 개발 - 삽화 구축		- 남북이 각기 집필한 원고 교차 검토 - 공동집필회의에서 교차검토한 원고 합의		- 교열·교정 - 출판

2 진척률

2015. 5.

항 목 / 업 무		내 용	업무 비중	업무별 진척률	전체 대비 진척률
올림말 선정		올림말 선별 요강 합의 올림말 선별 작업 완료 계열어휘 목록 선정 및 문제어휘 심사	20	97	19.4
새어휘 조사 및 선정		새어휘 조사 요강 합의 새어휘 선별 및 조사 작업 진행 중	10	93	9.3
집필	기존 올림말 집필	집필요강 합의, 예비 집필 완료, 본 집필 진행 중	30	59.2	17.7
	새어휘 집필	집필요강 합의 예비 집필 완료, 본 집필 진행 중	10	57.5	5.8
형태표기 단일화		자모 명칭, 자모순 합의 두음법칙, 사이시옷,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등에 대한 단일화 논의 진행 중	10	90	9.0
편찬 프로그램 개발/운용		용례검색 프로그램, 원고입력 프로그램 등 개발	10	95	9.5
교정·교열 및 출판			10	0	0
계			100	-	**70.7**

4. 남은 과제

그동안 남북의 사전편찬가들은 편찬지침을 합의하고, 사전에 수록할 30만여 개의 올림말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올림말을 남북이 분담하여 집필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현재는 상대측 원고에 대한 교차 검토 작업 후 '1차합의원고'를 작성하고 있다. 합의원고 작성 후에는 다시 교정·교열 작업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출판하게 된다. 2015년 이후의 편찬 일정은 다음과 같다.

(6) 향후 편찬 일정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1 올림말	올림말 목록 합의 및 관리				
2 집필	<1차합의원고> 작성				
3 형태표기 단일화	두음법칙, 사이시옷, 띄어쓰기 등 형태표기 단일화 작업				
4 새어휘	<1차합의원고> 작성				
	새어휘 목록 최종 합의 및 관리				
5 삽화	삽화 목록 확정 및 자료 구축				
6 프로그램 개발	사전 편찬 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집필원고 DB 관리				
7 교정·교열			교정·교열		
8 출판					출판

위의 계획대로 편찬 작업을 진행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이 중에는 (7 가)처럼 사전편찬가들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7 나, 다)처럼 사전편찬가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편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가. 남북 어문 규범 단일화 문제

남북의 사전편찬가들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교정·교열 작업 이전에 사전 편찬을 위한 '남북 어문 규범 단일화 작업'이다. 그동안 자모 명칭, 자모 순서, 일부 형태 표기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으나, 두음법칙 표기, 사이시옷 표기, 외래어 표기, 띄어쓰기 등의 문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남북 양측의 의견이 제시된 상황이므로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일만 남아 있다.

나. 남북 관계 및 편찬 기한 문제

편찬 일정에 맞추려면 공동편찬위원회에서 합의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공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 2010년 이후 중단되었던 공동회의가 4년 7개

월 만에 재개되었지만, 다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공동회의가 1년에 두 차례 정도밖에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공동편찬위원회에서는 공동회의 1회당 합의할 원고량을 최대한 늘려 놓았지만, 향후 1년에 네 차례의 공동회의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편찬 일정을 다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다. 교정・교열 작업 문제

교정・교열 단계에서는 수정해야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한다. 게다가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 요강'에는 남북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원고를 수정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과,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하면 남북 편찬원들이 함께 상주하면서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사전의 올림말에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체제, 문화, 제도, 정서, 생활방식, 사고방식 등 여러 상황이 섬세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동안 남과 북에서 각기 편찬된 사전의 경우, 이러한 상황들이 동일했으므로 사전 편찬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경우, 올림말 하나하나의 선정 여부와 뜻풀이 등에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또한 남북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림말을 '여자'로 올릴 것인지, '녀자'로 올릴 것인지, '의식주(남)'와 '식의주(북)' 가운데 어느 것을 올릴 것인지(아니면 모두 올릴 것인지), 남과 북 어느 한쪽에서는 쓰이지 않는 '워크아웃', '뜨락또르' 등의 외래어를 올림말로 인정할 것인지 등도 하나하나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뜻에 차이가 있는 낱말, 즉 '동무'의 뜻으로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외에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함께 싸우는 사람'을 반영할 것인지도 합의해야 한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이러한 사전 편찬 내적인 문제는 남북의 사전편찬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남북 관계 경색과 같은 사전 편찬 외적인 부분이다. 앞으로 20여만 개의 합의 원고 작성, 교정·교열 작업 등 사전 편찬을 위해 합의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2009년 이후로는 사전편찬가들의 만남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두고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던 전문가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려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반드시 건너야 할 개울이 있을 때, 한 번에 건널 수 없다고 하여 그 개울이 메워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개울을 건너기 위해 개울의 중간중간에 돌을 놓고 하나하나 디뎌 가며 건너듯이, 우리가 열망하는 통일도 디딤돌을 놓는 작업처럼 하나하나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그 디딤돌이 잘 못 놓이거나 쓸모없는 것이 될지라도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의 어휘 이질화는 오랜 기간 진행돼 온 것이고, 또한 그 차이가 사회 체제와 언어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하루아침에 극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혹독한 일제 강점기에 '한글마춤법 통일안(1933)'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을 미리 준비하고, 아울러 《큰 사전》 편찬 작업을 하여 광복 후 우리 어문 생활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다시 한 번 통일시대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나하나 해 두어야 할 것이다.

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 우리말 문화유산의 정비와 통합을 위한 과제 –

발 행 인 송 철 의
발 행 일 2015. 8. 14.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http://www.korean.go.kr
인 쇄 (주)계문사 (02-725-5216)

※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간행물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